

‘개혁신당’ 창당 성공 여부 의원 20명 확보에 달렸다

호남의원들 주축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분당 수순 돌입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명분도, 실리도 없는 보수야합’으로 규정하며 극렬 저항해온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신당창당’ 카드를 꺼내들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과 연관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통합반대파 의원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4일 신당창당에 앞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으로 가는 최종 관문인 전당대회 무산이 여전히 1차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대 무산과 별개로 안철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합파와 호남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통합반대파는 이미 분당 수순에 돌입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순간부터 사실상 집단탈당 내지 분당을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결국 분당으로 선택지가 좁아진 것이라는 얘기가.

성공 가능성이 다소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호남의원들의 신당 창당, 이른바 ‘개혁신당’ 창당은 일종의 모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통합 상대정당인 바른정당이 햇볕정책(DJ정신)을 거부하고 호남을 사실상 배제해왔다는 점에서 국민-바른 통합정당으로 옮겨가는 것은 애초부

터 호남의원들의 선택지에 오를 수 없는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다만, 호남의원들에게는 개혁신당의 잠재 지지율이 저조한 점이 부담이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통합반대파(개혁신당)의 잠재 지지율은 2.8%에 그쳤다. 이와 관련, 김경진 의원은 통화에서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논하기 보다, 합당 추진 자체가 명분 없는 정치공학적인 움직임이라는 판단 아래 끝까지 통합반대 의원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의원들이 결국 신당창당을 한다면, 성공의 가능성은 6·13 지방선거 선전 그리고 의석수 20석 확보 여부다. 이를 위해선 호남의원들의 단일대오 유지와 호남 민심 끌어안기가 필수적이다.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의원 20명을 확보한다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이 행사해 온 ‘게스팅보터’로서의 영향력을 일정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정치적 영향력 유지는 물론 신당의 존속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국민의당의 지지도가 밑바닥이라는 점에서 ‘개혁신당’이 내세운 후보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을 제치고 더불어

민주당에 맞설 파트너로 부상하는 등 지방선거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를 5개월여 남겨둔 현재까지도 합당 추진에 따른 중앙당의 방향 때문에 후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아우성 때문에 호남의원들의 결단이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합으로 가는 관문인 전당대회 개최를 두고 양측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통합반대를 주도하는 호남의원들의 신당창당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 전 대표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개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은 확실하다. 중립기대에서 당이 깨지는 것을 막고 있는 김동철, 박주선, 주승용, 황주홍 의원의 경우라도 막판 선택의 순간에는 우리와 합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우선은 이상돈 의원을 중심으로 전대를 무산시키는 게 당면 목표지만, 지방선거 출마대상자들의 어려움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다”며 신당창당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전 대표는 “개혁신당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 광역단체장 3곳 모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靑, 위안부 할머니들 국민급 예우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경숙 여사가 4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초청 오찬에 참석하는 할머니들과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민간-공공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각

민간부문, 최저임금 인상...일자리 줄고 근무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생활임금 적용으로 대폭 상승

청소, 경비, 주차, 건물 관리 등의 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에서는 일자리가 줄거나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등 근로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반면 공공에서는 정규직 전환은 물론 생활임금 적용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에 이를 경우 지난 2015년 도입된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8840원으로, 최저임금 7530원의 1.17배 수준이다. 광산구의 경우 9780원, 전남도 역시 9370원으로 광주시보다 많다. 광주시나 광산구의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매달 각각 184만7560원, 204만4020원을 받을 수 있다. 시·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 등이 대상이

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는 대상자가 크게 줄 전망이다. 시·군정 및 공기업 등의 비정규직 대부분이 정규직(공무직)으로 신분 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 시·군정 등에서 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맡았던 859명이 비정규직이 공무직으로 전환됐으며, 이들의 시급은 9800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달이면 204만8200원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가족수당이나 급식비 등이 추가되면서 임금 인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청소, 경비 등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시·군정에서는 물론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의 인건비 부담도 늘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인건비 증가분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같은 일을 하지만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처우에서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민간위탁기관을 시작으로 생활임금의 단계별 적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에도 부담을 느끼는 민간부문에서 최저임금보다 최대 1.3배에 달하는 생활임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만 벌어질 우려가 높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상당수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생활임금 적용자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인상된다면 생활임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7월부터 적용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체장이 결정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낙상·저체온증·위험한 겨울산 ▶6면

2018 광주시립예술단체 일정 ▶16면



新팔도유람-경남 거제 겨울바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소한 추위...영하 5도 '뚝'

주말 광주·전남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눈 또는 비까지 내릴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2일까지 중국 북부·몽골 지역의 찬 대륙 고기압이 한반도에 내려와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고 4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소한(小寒)인 5일 광주·전남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구름이 많고 흐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6일에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4도~

8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7일에는 기압골 영향으로 오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영상 2도, 낮 기온은 5도~8도 분포를 보이고 예상강수량은 평년(0~1mm)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7일 중국 남부 쪽에서 들어온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비가 내리고 최저기온이 4도 이상 떨어지겠다”면서 “곧바로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들어와 눈구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돼 8일부터 10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눈이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추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인삼의 생명력을 담은 혁신적 마스크 우아하게 빛나는 탄탄한 피부를 선사하다

NEW 설화수 자음생마스크

건강하지 않은 피부상태가 지속되면 피부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인삼에서 찾은 강력한 에너지로 집중적인 피부 개선을 돕는 자음생마스크

인삼 뿌리의 핵심 에너지를 담아 집중적인 보습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자음생크림의 부드러운 그대로를 담은 이중 구조 더블 랩핑 시트™로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합니다
이제 자음생마스크로, 경량해보이지 못한 혁신적인 마스크 인티에이징을 시작하세요

Sulwhasoo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콜센터: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